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더 소울

## 종교NEWS

###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고성지역 각 교회들 24일 다양한 행사 마련 ... 성금·쌀·세탁기 전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다.”

추운 겨울 날 팍팍한 삶과 외로움을 느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세상의 구세주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강조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고성 지역 각 교회에서는 성탄절행사와 이웃사랑과 나눔행사를 가진다.

천진중앙교회(목사 광병태)는 24일 저녁 7시부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연주, 연극과 성경구절 암송 등 성탄절잔치를 벌인 뒤 찬양조를 나눠 각 교우의 집과 관공서를 돌며 새벽송 행사를 연다. 또 쌀 47가마니를 준비해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



지난해 성탄절 행사 모습. 왼쪽부터 고성감리교회, 대진감리교회, 천진중앙교회.

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성감리교회(목사 최진묵)는 24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이브 축하잔치를 열고 생활용품 등을 경품으로 나눠 준다. 아울러 22일부터 24일까지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에 노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10kg 쌀 100포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성중앙교회(목사 한남석)는 24일 속초 로데오거리에서 온 교우들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활동을 펼친다. 또 25일 성탄절 당일 거둬진 모금액을 고성군 희망 2011 나눔성금에 기탁할 예정이다.

거진중앙교회(목사 김 혁)는 성탄절에 사랑의 빵 모금운동을 열어 아프리카에 기아대책기구에

보낼 계획이다. 또 군 장병 위문품보내기 사랑의 헌금과 군부대 전방초소에 세탁기 3대를 전달한다.

대진감리교회(목사 전영섭)는 24일 전교우가 참여하는 성탄축하 잔치와 25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새벽송과 성탄 감사예배 및 성례를 행한다.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마다 어려운 가

정에 쌀과 연탄 등을 나누는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천진중앙교회 광병태 목사는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온 인류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성탄절을 맞이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온기로 희망이 가득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종교칼럼

# 구주 강생하신 성탄의 의미



한남석  
고성중앙교회 목사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기는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 하고 타락해버렸

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고생과 파멸의 길을 가다가 그 영혼은 지옥 불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임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1:1) 그러나 사람들은 헛된 것을 숭배하면서 도리

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참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마저 거절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 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여 서로 경쟁하고 시기질투하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성탄의 의미가 너무도 많이 퇴색되어 잘못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성탄의 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키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는 결코 산타크로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